

# 2008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

### 언어 영역

#### 정답

1	2	2	5	3	3	4	5	5	2
6	5	7	3	8	3	9	2	10	1
11	4	12	1	13	4	14	5	15	2
16	4	17	4	18	5	19	3	20	2
21	1	22	1	23	5	24	5	25	3
26	3	27	5	28	2	29	2	30	4
31	2	32	5	33	1	34	4	35	3
36	5	37	5	38	4	39	1	40	4
41	1	42	4	43	5	44	2	45	1
46	1	47	2	48	1	49	3	50	2

#### 듣기대본 및 해설

#### 1. [출제의도] 교양 강좌를 듣고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문제이다.

이제 심리학에 관한 교양 강좌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으레 빠지지 않는 회의. 회의실로 들어선 당신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상사의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아니면 늘 맞은편인가요?

조직심리학자인 리빙스턴에 따르면 회의실 자리의 위치가 그 사람의 조직내 지위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는 또 “특이할 만한 사실은 회의 때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늘 같은 자리에 앉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조직내 지위가 ‘자리’라는 영역으로 표출되는 인간의 심리학적 특성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회의실 탁자를 중심으로 우선 탁자의 머리말에는 주로 최고경영자가 앉습니다. 리더를 중심으로 리더의 오른쪽 옆 자리에는 소위 ‘에스맨’이 앉죠. 에스맨의 관심사는 회의 주제나 다른 참석자가 아닌, 오직 리더뿐입니다. 리더의 왼쪽 옆 자리에는 이른바 ‘yes, but’ 유형, 즉 맞는 말씀입니다만……유형이 주로 앉습니다. 이들은 권력구도에서 약간 복잡한 위치에 있는데요, 리더가 내놓는 큰 원칙에는 대체로 찬성하다가, 곧잘 리더에게 반대 의견을 내놓아 리더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편 탁자의 중간에 앉은 사람은 흔히 ‘중재자 타입’이 많습니니다.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하면서 찬성의견과 반대 의견을 잘 조율하는 역할을 하지요. 마지막으로 리더를 정면으로 마주 보는 자리에 앉은 사람은 ‘논쟁적인 유형’에 가깝습니다. 회의에 집중하며 종종 현란한 말솜씨로 리더와 상반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즐기는 유형이죠.

(사이)

지금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자는 의견과, 연구 인력을 늘려 내실을 기하자는 의견이 서로 심각한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사이) 리빙스턴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립과 갈등을 중재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자는 의견과 연구 인력을 늘려 내실을 기하자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갈등 중재자는 리빙스턴에 따르면 탁자의 중간에 앉는다고 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2. [출제의도] 수업 내용을 이해한 후 이를 유추, 적용해보는 문제이다.

이번에는 수업 장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편의점의 음료수 진열장에서 음료수 한 캔을 꺼내볼까요? 이상하게도 캔 음료수 대부분이 원기둥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삼각기둥도 있고, 사각기둥도 있는데 굳이 원기둥 모양으로 캔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음료수 캔의 바닥이 원모양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삼각, 사각, 원. 각각의 둘레의 길이가 같을 때 이 중 어느 도형이 가장 넓을까요? 삼각, 사각보다 원이 가장 넓습니다. 즉, 같은 높이의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이 있다면 이 중 원기둥의 부피가 가장 크다는 거죠. 이것은 원기둥이 음료수를 많이 담을 수 있으면서도, 캔을 만들 때, 재료인 알루미늄이 가장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효율적인 원기둥 모양의 캔. 그 안에는 또 하나의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캔의 밑바닥을 한번 볼까요? 예……. 그렇죠. 바로, 안으로 오목한 아치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치 통조림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래요, 밑바닥이 평평하죠. 왜 이 두 캔은 밑면이 서로 다른 것일까요? (사이) 이는 내용물에 ‘기체가 포함되느냐, 아니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탄산음료의 경우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팽창하면 캔 속 압력이 커져 폭발할 우려가 있어요. 이 폭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캔의 밑바닥 모양을 아치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밑바닥을 오목하게 만드는 것은 위에서 누르는 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바닥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면 캔 속의 압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거든요.

음료 용기를 원기둥 모양으로 만드는 이유는 둘레의 길이를 같게 했을 때 원의 넓이가 가장 넓은 원리를 이용하여 용기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즉, 경제성을 고려하여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3.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번에는 대화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아(여) : 범수야, 너 시계 샀구나? 멋진데!

범수(남) : (우쭈대며) 멋진지? 이번 생일에 아빠가 사주었어.

현아 : 야, 좋겠다. 잘 어울려.

범수 : 그래? 고마워.

현아 : 그런데, 범수야. 너 시계 가게에 갔을 때, 뭐 이상한 거 못 느꼈니?

범수 :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현아 : 시계 가게에 진열된 시계들이나 TV광고에 나오는 시계들은 대부분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범수 : 그래? 뭐야? 잘 모르겠는데.

현아 : 시계 가게에 진열된 시계들이나 TV광고에 나오는 시계들은 대부분 바늘이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어.

범수 : 뭐? (사이) 어? 듣고 보니 그런 거 같네.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지?

현아 : 그럼, இரு 말구. 보이지 않는 마케팅 기법이 숨어 있지.

범수 : 그게 뭔데?

현아 : 소비자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상품 하나에도 나름의 비밀이 숨어 있어.

범수 : 그래?

현아 : 시계 바늘을 10시 10분에 맞춰놓는 건 시계 세공업으로 유명한 스위스에서 시작됐어. 시계 회사들이 이 V자형을 고안해낸 건 12시 표시점 아래 적혀 있는 상표명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야.

범수 : 아하. 바늘이 10시 10분을 가리키면 상표명이 가려지지 않는구나.

현아 : 그래. 바로 그거야. 그리고, 이 역삼각형 구도는 디자인 감각을 살리고 동적인 느낌을 주어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게 되지.

범수 : 그렇구나.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 동근관에 V자면, 음……. 옷은 모습으로 연상되기도 하네.

현아 : 야, 진짜 그러네. 재밌지? (사이) 이번 수행평가 과제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번 해보아야겠어.

대화 내용의 핵심은, 시계 판매에 있어 시계 바늘 위치를 조정할 정도로, 상품 속에는 이를 판매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

를 통해 상품 속에는 숨은 마케팅 전략이 있다는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4. [출제의도] 토론을 듣고 생략된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1)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정책을 담당하시는 박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유정인 님.

유정인(남1) : 네, 너무 답답합니다. 설, 추석 등의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지방 국도보다 소통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저속 통행을 하는데도 도로공사는 꼬박꼬박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이죠. 저속도로를 가는데 왜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자(여1)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고속도로 정책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이며, 수요가 몰리면 가격을 올려 이를 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행료를 감면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습 정체 구간 통행료를 올려 고속도로 차량 통행을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유정인(남1) :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규정한 ‘유료도로법’ 총칙에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유료도로에 대해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어요. 즉, 유료도로법은 시간과 비용에서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통행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통체증 등 관리 소홀로 인해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할 때에는 속도가 떨어짐으로 인해 줄어드는 소비자의 이익만큼 통행료를 감면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회자(여1) : 박 과장님,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과장(여2) : 명절이나 관광철 등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 교통 받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거나 폐지하면 신규도로 개설을 위한 투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유지 관리 비용은 무엇으로 충당하십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들로 인해 상습적인 정체가 빚어지는 상황에서 고속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면 보통 문제가 아닐 텐데, 이러한 비용을 만약 통행료가 아닌 국고에서 충당한다면 이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토론의 주제는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통행료 징수와 관련한 것이다. 남자는 정체 구간의 경우 오히려 저속으로 가기 때문에 통행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통행료를 징수하여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박 과장은 고속도로 정체 구간 통행료 징수의 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5. [출제의도] 대담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남자는 ‘유료도로법’ 총칙을 인용하여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통행료 징수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쓰 기 \*\*

#### 6.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발상을 통해 주제에 맞는 글감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사물놀이의 특성으로부터 바람직한 학급의 모습을 연상, 유추해야 한다. 사물놀이는 서로 다른 소리를 가진 악기들이 고유의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서로 어우러져 신명나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개성이 발휘되는 동시에 하나로 조화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7. [출제의도] 작성된 개요를 새로 접한 글감을 이용하여 수정하는 문제이다.

‘자료 ㄷ’은 과대 포장인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 부족 등으로 인해 단속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II-2’는 상품 포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으로 ‘단속의 어려움’은 상품의 과대 포장이나 2차 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8. [출제의도] 자료를 보고 현상을 해석하는 문제이다.

‘자료 ㄱ’과 ‘자료 ㄴ’을 통해 오존주요발령횟수와 아동의 환경성 질환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해 발생 주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9.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하는 문제이다.

속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②, ④이고, 역설적 표현을 활용한 것이 ②, ③이다. 속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여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는 조건이 충족된 것은 ②번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안절부절하다’는 ‘안절부절못하다’의 잘못으로, 표준어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1. [출제의도] 접사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롭다’의 경우 ‘평화’, ‘자유’ 등의 자립 형태소와 결합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2. [출제의도] 본말과 준말의 관계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①의 ‘좁’은 ‘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 간곡한 뜻을 더하는 말로 ‘정도나 분량이 적게’의 뜻인 ‘조금’과 바뀌 쓸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운문복합 \*\*

□ 출전 : (가) 백석, ‘팔원(八院)’ (나) 나희덕, ‘흰 광목빛’ (다) 김창협, ‘작병행(鑿氷行)’

13.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는 버스에서 만난 어린 계집아이의 모습, (나)는 길가에서 서 있는 부부의 모습, (다)는 한겨울 강가에서 얼음을 깨는 백성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4. [출제의도] 주어진 관점이나 단계에 따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 (나) 모두 중심 대상에 대한 관찰과 상상, 이를 통한 의미 추출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흰 광목 목도리를 두른 부부를 보며, 그들이 함께 살아낸 세월을 상상하며 그 속에 숨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미록’처럼 여유 있고 자비로운, 마음 넓은 따스함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부부의 모습은 방황과 고뇌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5. [출제의도] 시구를 비교·대조하여 화자의 태도나 정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B]는 백성들의 노역을 바탕으로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양반을 정자로 하여 백성에 대한 착취를 비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6. [출제의도] 화자의 생각과 정서를 바탕으로, 조건에 따라 창의적 글쓰기를 하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계집아이를 보며 아이의 힘들었을 삶을 상상하고 동정과 연민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정서를 바탕으로 ①의 특징적인 통사구조를 이용하여 새롭게 고쳐 쓰는 문제이다. 이런 통사 구조를 가진 것은 ④와 ⑤이다. 이 중에서 추상적 대상인 ‘시간’을 감각화하여 ‘차가운’, ‘흘러들어온다’라고 표현한 것은 ④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7. [출제의도] 시어가 지닌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나)는 화자가 발견한 흰 목도리를 두른 부부의

모습이 초점이다. 화자는 흰 광목 목도리에서 순수함과 소박함, 정갈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그대로 미륵의 이미지로 화자에게 다가온다. 삶의 여유와 잔잔한 감동,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차오르는 감동적인 모습을 부부의 모습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다)는 5·6행, 7·8행 등에 대구가 나타나며,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의 설의적 의문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얼음 깨는 소리, 노동요 소리의 청각 이미지를 통해 힘든 노역의 현장을 그리고 있다. ‘용궁까지 들리는’ 얼음 짙는 소리가 과장적 표현으로, 한겨울의 고생스런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백성의 고역을 통해 양반의 호화스런 삶이 가능함을 말하면서 풍자적·비판적 의도를 드러내지만, 반어법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기술 \*\*

□ 출전 : 최양규, <태양보다 뜨거운 반도체집>

19. [출제의도] 글의 서술 전략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반도체집 기술의 핵심과 과제에 해당하는 부분의 서술전략은 반도체집의 집적도를 높이면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설명하고 있다. 반도체집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0. [출제의도] 글의 핵심내용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 따르면, 게이트의 종류를 변화시킨 이유는 트랜지스터의 열을 잡기 위한 것으로, 전자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1.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반도체의 열은 전기 신호를 지연시켜 회로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오작동을 일으킨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게이트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를 흘러주거나 끊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가스관의 중간 밸브 역할과 유사하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현대 소설 \*\*

□ 출전 :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향아리’

23.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의 회상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4. [출제의도] 상황에 따른 화자의 심리를 묻는 문제이다.

예상치 못했던 집안 분위기에 혼돈스러워 하던 ‘나’는 엄마가 불을 끄고자 그제서야 상황에 대한 균형감이 살아났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5. [출제의도] 다른 장르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나’가 거리를 쏘다니는 것은 혼란 시간을 잊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박한 배경음악은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6. [출제의도] 관점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A]에서 ‘나’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인식하면서 주변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의식을 획득하게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예술 \*\*

□ 출전 : 윤자정 외, <현대의 예술과 미학>

27. [출제의도] 핵심 개념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패러디나 패스티시와 같은 차용은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모방과 재창조를 통해 예술의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8.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와 글의 핵심 정보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 제시된 ‘표절’은 원작을 은폐하지만, <보기>의 제2유형은 원작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

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9.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마네의 「발코니」는 고양의 「발코니의 마야들」의 고유성과 진품성보다는 화가의 패러디 의도를 더 중요하게 부각시킨 작품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언어 \*\*

□ 출전 : 노명완, <문장의 결합 방식과 응축>

30.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대명사화를 도식화하면 ◎♡◎ ☆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1.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다른 사례에 적용하여 파악하는 문제이다.

ㄱ은 ‘무엇이 어떠한가’의 유형인 보문에 의한 내포이다. ㄴ은 이어진 문장, 즉 접속에 의한 결합이고, ㄷ은 관계절을 내포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2. [출제의도]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⑤는 준서와 민서의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민서는 도서관 직원 누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준서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고전소설 \*\*

□ 출전 : 작자 미상, ‘적성의진’

33. [출제의도] 상황 및 심리에 적절한 한자성어를 묻는 문제이다.

왕비는 성의의 생사를 몰라서, 가슴 졸이며 애타게 태우고 있다. 왕비의 이런 마음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노심초사(勞心焦思)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34.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태도를 묻는 문제이다.

항의는 부모님께 동생이 걱정되어 서천으로 간다고 말하고, 성의를 만나서는 성의를 마중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항의의 본심은 일영주를 빼앗고 성의를 해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5.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적 태도의 원인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 ㉡, ㉢, ㉣ 모두 왕위와 관련하여 성의의 입지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추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6.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보기>를 통해 성의가 항의를 신뢰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글에서 성의가 바다에서 만난 항의에게 아무 의심 없이 일영주를 넘겨주는 것을 보면, 성의는 항의를 믿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사회 \*\*

□ 출전 : 한진수, <시장도 실패하고 정부도 실패하고>

37.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분류, 정의, 예시, 대조 등의 설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유추는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8. [출제의도] 어법과 관련하여 사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①의 ‘걷다’는 어간의 끝소리가 ‘ㄷ’이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ㄷ’이 ‘ㄹ’로 바뀌었다. 이를 ‘ㄷ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듣다’ 역시 ‘ㄷ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9.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대 생산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며 보조금 지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0. [출제의도] 관점에 따른 비판적 의문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기>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 사례로 주민 대표와 버스회사 사장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 본문 내용과 배치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회곡 \*\*

□ 출전 : 이강백, '느낌, 극락(極樂)같은'

41.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작품은 다른 회곡에 비해 지시문이 적고, 소도구나 공간배경 등 무대 장치 지시가 거의 드러나 있지 않다. 그 반면 대화를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과 작품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물의 대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2.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및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서연은 함표진에게 불상 제작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한다. 불상 제작을 포기했다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43.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서연은 불상 제작을 그만 두고 여기저기를 떠돌다 돌아와, 동연을 설득하고 있다. 부처님 화상만 들여다보며 외적인 형태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온갖 사물 속에 깃들일 수 있는 진정한 부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기에 온갖 바윗돌에서도 진짜 부처님을 발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4. [출제의도] 관점에 따른 인물 구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작품은 함표진 중심의 안정적 삼각형 구도에서 불안한 이중 구도, 그리고 상승 구도로 진행된다. 서연이 내적 갈등으로 인해 불상 제작을 포기하는 것은 동연 중심의 부정적 상승 구도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인문 \*\*

□ 출전 : 신경근, <논어의 숲, 공자의 그늘>

45. [출제의도] 글의 집필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공자·맹자·순자로 대표되는 고대 유가들이 '이익'류 욕망을 각각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차례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6.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순자는 욕망의 현실화는 마음의 절제를 통해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았지만, 욕망의 생성은 자연적 사실이므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보았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7.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1문단에 따르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을 때 '관계의 안'이 축소·고립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과학 \*\*

□ 출전 : 심은보, <생체 에너지 공장>

48.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①에서 포도당은 이미 분해되어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후 수소이온을 방출한다. 그리고 이 수소이온의 이동과 농도 차이에 의해 ATP가 생성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9.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유사한 사례를 찾는 문제이다.

ATP는 생체에너지로 사용된 후 ADP가 되는데, 이 ADP가 ATP 생성모터에서 다시 ATP로 바뀌어 생체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즉, 에너지가 떨어진 ADP가 ATP 생성모터에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방전된 배터리에 다시 전기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50.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추리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건강을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글에 진술되어 있다.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는 원인은 산소 부족으로 인한 호흡 불완전, 영양분의 과다 섭취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